

6월2일

심채린

본문: 사도행전 1장 3~11절

제목: 피땀눈물

대지: 편지의 목적 / 성령을 받으라

한 문장: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증거하는 삶을 살자

참고: BECNT, NICNT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한 믿음의 의사가 자신이 보고 확신한 사실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사도행전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과 소명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와 천국 복음’이라면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와 성령에 핵심’이 있습니다. 즉 누가복음이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고난 당하셔야만 했던 순종의 스토리를 담고 있다면, 사도행전은 왜 그렇게 순종하셔야만 했는가?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모였을 때에 마지막 말씀을 주십니다. 이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이곳에서 전도를 시작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성령이 무엇일까요? 성령이 처음 등장하는 창1:1-2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그 성령은 창조와 함께 우리 첫째 날이 시작되기 전부터 우리를 위해 함께하셨습니다. 창6:3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곧 성령이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인정 받은 다윗이 밧세바를 강제로 얻어낸 후에 간절히 회개할 때에도 이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신약에 가장 큰 핵심인 예수님의 나심 역시도 성령으로 인하였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도 성령이 내렸음을 보았다고 합니다. 또 수많은 기적 역시도 예수님의 개인 권위가 아닌 성령에 힘입었다고 하는 걸 보면, 성령은 곧 하나님의 영이고, 성령 자체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흘린 피, 모든 사랑의 땀, 용서의 눈물은 결국 8절처럼 나와 같은 증인을 세워 또 다른 성령의 사람들을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비밀을 주시기 위해 오셨고, 남은 우리에게 유언으로 주신 선물 또한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이 땅에 남은 우리는 예수님의 유언을 기억하며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을 구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죽어야 오픈 되는 곳도 아니며, 특별한 자가 쉽게 가는 곳도 아닙니다.

지금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경이 아니라 경험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6월9일

심채린

본문: 사도행전 9장 1~9절

제목: 장담할 수 없는 인생

대지: 먼저 찾아오신 주님 /은혜부여

한 문장: 예수님의 은혜를 부여받는 자가 되자

참고: BECNT, NICNT

바울은 다소 시민권과 로마의 시민권을 둘 다 지녔을 만큼 가장 유명한 유대인 중 한 가문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소로 유학을 갔지만 바울은 그 다소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거기서 유대교 바리새파 중에서도 최고의 학자이자, 유대신앙의 정신적 지주였던 산헤드린의 제자가 되었을 만큼 유대 엘리트층에 속했던 자였습니다. 그가 학령기를 거쳐 성인에 이르러 그 열정이 절정에 이르렀을 즈음 신성 모독하던 예수와 그 제자들을 이단자로 규정하고 핍박했습니다. 사울은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 중 스데반이란 자가 유대주의가 아닌 복음주의 설교로 초를 치듯 찢리는 설교를 해대자 그를 돌로 쳐 죽이도록 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음 당함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그에게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는 것에 대한 열심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스데반의 죽음은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의 시작이 되었고, 정당함을 인정 받아 이제는 아예 대제사장에게 직접 찾아가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모이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을 공문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제 사울은 당당하게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거의 다 도착했을 무렵 홀연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서자 사울이 한 번에 땅에 쓰러졌습니다. 갑자기 사울 한 사람에게만 비추신 빛과 그 분명한 음성은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주님이 직접 그를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울은 다시 일어섰고 눈도 떴지만 아무 것도 보지 못하여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사실 사울은 그저 율법대로 열심히 살려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정반대의 길을 걷게 된 것일까요? 그가 지식이 부족했던 것인지, 성품이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다른 악한 의도가 있었던 것인지 사실 다 압니다.

사울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드렸지만 한 번도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부여가 그의 삶 가운데 없었습니다. 사울은 은혜가 부여 되기 전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내가 틀릴 일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고침이 없었고, 돌이킴은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의 은혜가 사울의 인생 가운데 부여되자 자신이 지금까지 붙잡았던 자기 완전함은 모두 죽었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완전하다고 여기는 인생에는 하나님이 결코 사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울이 경험한 빛은 가시적 연행이 아닌 그저 예수님의 떨림이 마음에 임재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어떤 이론도 설명할 길이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만난 변화는 외적 변화 뿐만 아니라 내적 변화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6월16일

심채린

본문: 사도행전 15장 1~11절

제목: 차별하지 않으시는 구원

대지: 좁은 생각의 영역 /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

한 문장: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지, 사람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다.

참고: BECNT, NICNT

본장은 마침내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입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다뤄지게 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보고된 바울과 바나바의 성공적인 선교에 의해 자극받은 바리새파에 속했을 일부 유대인들이 안디옥에 내려와 예루살렘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심상치 않은 논쟁이 발생했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 대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파견되어 토의의 장이 열렸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한 대표자들은 예루살렘과 안디옥 교회에서 파견되어 각기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해를 대변했습니다. 일부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할례 의식을 포함하여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구원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바울과 바나바는 이 문제를 교회 지도자들과 토의했던 것입니다.

이제 토의가 시작되면서 먼저 베드로의 발언은 자신의 경험을 근거해서 제한 없이 이방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의 연설은 모든 사건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묘사를 하는데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아시며,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증거했으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주었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했으며, 하나님은 그들과 우리 사이에 어떤 차별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결론은 베드로나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방인 영입을 주도했다는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연설은 '믿음을 통한 은혜에 의한 칭의'에 대한 강조로 끝을 맺었습니다. 쉽게 말해 이방인들은 구원 받기 위해서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었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이지, 결코 인간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지 인간의 행위 영역이 결코 아니며,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할 수 없는 것은 우리 모두 구원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에는 어떠한 제약을 둘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인종과 성별을 뛰어넘어 구원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자 선물입니다.

구원의 선물을 누리는 자는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6월23일

심채린

본문: 사도행전 20장 17~35절

제목: 양떼를 향한 고뇌

대지: 고별설교 / 바울의 고백

참고: BECNT, NICNT

바울은 오랜 기간 머물며 말씀을 가르쳤던 에베소 교회와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갑니다.

16절처럼 그가 참 가서 만나고 싶던 에베소 교회를 지나쳐 갑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러라”고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머물지 않기 위해 곧바로 내려가 밀레도로 갑니다. 그런데 그 배가 밀레도에 정착하는 며칠의 기간을 기회 삼아 그곳으로 말씀을 가르쳤던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그들을 만나서는 헬라와 아시아 전도의 3년을 회상하며 그 길은 2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에 대한 믿음을 전한 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가 가는 사명의 길이 순탄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을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은 24절에 이르게 됩니다 “내가 갈려 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러한 바울의 사명이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향해 양 떼를 맡은 감독자로 책임을 가지고 양들을 돌보아야 할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거짓교사들 곧 사나운 이리로 표현되는 이단들은 틈틈이 백성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니 장로들은 더욱 깨어 백성들을 지켜 말씀으로 그들을 거룩히 세워나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렇기 위해 장로들에게 항상 깨어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바울이 목숨까지 내놓았다고 했지만 그는 정말 끝까지 싸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사역했는지 이들에게 보임으로써 모범을 보였습니다.

6월30일

심채린

본문: 사도행전 28장 23~31절

제목: 포장 라이프

대지: 밑바닥 / 선한싸움

한 문장: 우리는 그리스도의 전적 은혜로 해방받은 자들입니다.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됩시다.

참고: BECNT, NICNT

그동안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며 반복하여 알게 된 것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두려움에 벌벌 떨었던 것은 사울이 선해서, 스스로 어떤 노력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는 강조하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회개하여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먼저 구원을 받아야, 부르심의 은혜를 입어야 회개할 기회와 자격이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살던 바울이 마지막 종착점에 이르렀습니다.

16절을 보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되더라”. 이제 3차 전도여행까지 마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고발되었지만, 아그립바 왕과 유대를 관장하던 베스도 총독은 바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여 결국 로마 법정에서 최종 판결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떠난 여정 길에서 로마에 오기까지 거센 풍랑과 뱀에 물리는 고난스런 호송작업을 겪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로마에 입성했지만, 그는 황제의 재판관을 통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고자 이 로마에 ‘선교 센터’를 세워 서유럽과 서버나(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엇나갑니다. 당시 로마의 5번째 황제가 네로 황제였는데, 그가 제국의 모든 정무를 다 핑개치고 나폴리와 그리스를 순회하며 가수놀이를 하느라 로마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2년 동안 봉 뜬 채로 황제 재판을 기다리며,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돈을 내어서 셋집이라는 아주 작은 집에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격리된 채 지내야 했습니다.

사람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무의미’입니다. 밑바닥에 있다는 것을 절감하는 이유는, 그만큼 자신의 존재 의미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밑바닥에서 치고 나아갑니다. 그가 밖에 나가진 못했지만, 대신에 그 셋방에 사람이 들어오는 것은 가능했습니다. 즉 배달은 안됐지만, 포장은 가능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그는 갇힌 중에, 막힌 중에 밑바닥에서도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가 보낸 편지에는 감사와 기쁨, 은혜가 넘쳤고, 그 편지 쓰는 일을 통하여 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이 주어진 상황이 밑바닥일지라도 그것을 치고 나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위해 선한싸움을 쉬지 않고 전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